

사랑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 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주인 아저씨가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자장면 두 개 주세요."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응, 점심 먹은 게 채했나 봐."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구."

바로 그때 주인 아주머니듯한 여인이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한참동안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았다.

"너 혹시 인혜 아니니? 인혜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 한 동네에 살았었는데, 네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사니?"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인정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제야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선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자장면 세 그릇과 탕수육 한 접시를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가라. 차 조심하구.. 자장면 먹고 싶으면언제든지 와, 알았지?"

"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 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안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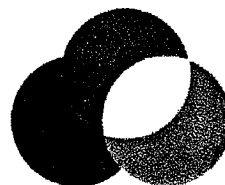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돼 보이던지....."

주인 아주머니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연탄길" 중에서)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2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6월 9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신앙색(Color of Faith)



가산혼합(加算混合 Addition Mix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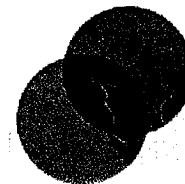
=색광(빛)의 혼합

색상이 있는 빛의 혼합은 합쳐질수록 혼합색이 밝아 집니다

감산혼합(減算混合 Subtractio Mixing)

=(색료의 혼합)

물감이나 잉크등과 같은 색료의 혼합은 합쳐질수록 혼합색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색깔이 있다고 다 빛이 아닙니다.

빛된 성도는 함께 가까이 지내는 성도들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냅니다.

믿는자끼리 만났는데도 부정적이고 흉한 신앙의 색깔을 만드는 성도가 있다면 스스로 어두움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닳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테살로니가 전서 5:5)"

엄마가 딸에게

친절하여라

차가운 여자는 열 없는 태양과도 같다
작은 친절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의 감정보다 더욱 값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헌혈에 참여 하거라

건강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건지는 거룩한 일이다
현대 과학도 피를 만들지 못한다

주 일 에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95 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 찬 식

분병 (김교섭, 김영길, 이재영, 정덕수)
분찬 (김중건, 박일영, 이광희, 장현중)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9:28-36(신 107)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영광의 변화"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76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 헌 금 기 도 Offer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1절: 임혜자, 신영화, 이규임, 윤주아 2절: 다갈이) 다 갈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6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주 일 안 내	Tea Time
2일	김동숙	사카시다	권용일, 이지영	전병주, 정덕수
9일	김순자	신영화	박일영, 김중건	권용일, 김성국
16일	김영길	신영화	박정자, 정희자	최재학, 김교섭
23일	김중건	양경배	박상옥, 이금선	김영길, 김중건
30일	노은숙	윤형권	박병민, 이기중	박상옥, 박일영

【 우리 교회 부흥을 늦어지게 하는 방법 】

"갈보리교회"를 유명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유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닭살돋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 교 회 소 식 ▶

*어느덧 6월, 월드컵의 달이고 어른들께서는 6,25가, 30-40대는 6,25상기 웅변대회가 기억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번달에도 가정과 사업에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에 고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오늘은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2. 식사친교주일: 가장 맛있는 밥은 "함께 먹는 밥"입니다.

- *제2 여선교회에서 수고하십니다.
3. 교우소식

*심한 감기몸살로 앓는 사카시다 집사, 최기향 집사 내외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이번 감기로 고생하신 교우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 회복위해 기도 드립니다

4. 결식자 식사봉사: 이번주에 우리교회가 담당합니다.

*담당: 제2 여선교회 *일시: 토요일(15일) 오전 10시 - 오후 1:30

5.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화요일 저녁 7:30 교회

*어머님들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원하시는 분은
용감히 부탁하여 주십시오(담당: 정희자 권사)

*여성교우들께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 잘한 한국 축구! 많이 변한 모습, 성숙해진 기량이 많은 국민들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도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축구가 끝나고 깨달았습니다.

내일도 미국과 경기가 있지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입장도 곤란하실 겁니다. 미국팀도 그렇게 기도할테니까요.

평소 맘출려 훈련한 실력 다 발휘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훈련할 때 실력이면 결승까지도.....

요즘 감이 풍년입니다. 감을 먹을 때마다 중학교 시절에 배운 고시조가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지요..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 안이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기리 업슬식 글로 설워하나이다.

- 박인로 - <해동가요>

[현대어 풀이]

쟁반 가운데에 놓인 일찍 익은 감(홍시)이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 가지고 가고 싶지만

품어가도 반가워 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